



“내 뒤엔 항상 부처님이...”

LPGA 우승 박세리양의 남다른 불심

“우승 뒤엔 항상 부처님과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14일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모바일토너먼트에서 박세리양이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화려한 역전승을 거둬 한국 골프 남자군단의 최고봉임을 다시 한번 확인 시키고 15일 귀국한 박세리(25)는 우승을 축하하며 “부처님, 단주를 차고 필드에 나가는 것은 이미 익숙한 그녀의 이미지. 만(만)지형 귀걸이를 즐기며 달고 다닐 때는 ‘나치즘의 표식이다’는 질문을 수 없이 받아야 했다. 그녀의 불심은 집안에 기도방을 두고 매일 기도하는 어머니(김정숙, 무심행)와 아버지(박준철)로부터 이어진 것이다. 박세리는 그 불심을 배경으로 세계적인 골퍼가 된 셈이다. 17일 저녁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 ‘이글 빌리지’(충남 유성)에서 만난 박세리는 마냥 밝았다.

▷불심으로 세계적 골퍼가 된 박세리. 매일 아침 저녁 참선을 하고 있다.

다른 운동과는 달리 정신력과 체력을 바탕으로 기록과 싸우는 골프에 있어 가장 큰 적은 바로 자신. “나를 이기려는 노력이 투어에 함께 나선 모든 선수들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박세리는 “매일 잠들기 전과 잠에서 깬 직후 5-10분씩 하는 참선이 나를 지키는 힘”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홀에서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는가? “행복해요. 많은 분들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고 부처님의 가피라는 것도 믿어요. 그러나 그 우승의 기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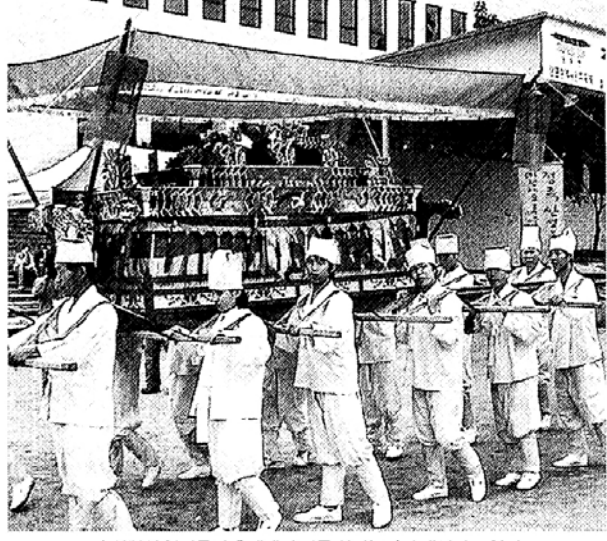
시합때 큰 敵은 나 자신...참선으로 극복 “단주통해 기도하는 어머니 마음 느껴요”

오래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 경기를 위해 다시 마음을 정돈해야 하거든요.” “단주를 차고 다니는 이유는? “맘이 편해서요.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참선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경기에 임했을 때 마음이 산란하거나 흔들리는 것은 치명타입니다. 어떤 경기에서나 우승을 해야겠다는 욕심이 없을 수 없어요. 이기기 위해 경기를 하는 것이고 혼신의 힘으로 경기에 집중하는 것이 프로의

결혼은 언제? “글쎄요. 좋은 인연이...” 그녀에게 결혼 계획을 묻자 아버지 박준철씨는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 목표”라고 했다. 그리고 박세리가 “그래도 약속을 지키려 할 것 같아요. 6점밖에 안 남았으니까...”라며 여러광고를 부리는 걸로 봐서 결혼과 관련 부녀(父女)간에 모종의 약속이 있는 듯했다. 어머니는 “아직 언니도 안 갖는데...”라며 웃을 뿐이었다.

유성=임연태 기자 yilm@buddhania.com



▷삼랑성 역사문화축제에서 전통 상여놀이가 재연되고 있다.

한·불 발전관계 모색-삼랑성 역사 문화축제

‘도서’ 반환촉구·만등제 행사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촉구하고 사적 삼랑성의 역사적 의의를 조명하는 축제가 열렸다.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조직위(공동위원장 계성스님·지음택)는 10월 18-20일까지 전주시 경내와 강화공설운동장 등 강화도 전역과 서울 마로니에공원에서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는 병인양요(1866) 당시 프랑스군에 약탈된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촉구하는 만등제 행사를

지역사회는 물론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한국과 프랑스의 미래지향적 발전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축제는 전통상여놀이, 풍물놀이, 민속기발축제, 연날리기, 학술세미나, 차문화 한마당, 전통사찰학춤, 열린문화 공연 한마당 삼랑성 백일장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서울 마로니에공원 등 행사장 곳곳에서 열린 외규장각도서 반환촉구 서명운동과 삼랑성에 2만개

의 등을 밝히는 만등제는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공동위원장 계성스님(전등사 주지)은 “전등사 스님들이 주축이 된 우리 선조들이 삼랑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지만 외규장각 도서 297권은 당시 프랑스군에 의해 약탈, 현재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며 “이번 축제가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범 국민운동으로 승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희=김두식 기자

“불교음악 ‘화청’ 들어보셨나요?”

부산불교합창단원 ‘합창올림픽’서 공연

범패송이 재 끝에 엮여진 불교음악 화청(和靑)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불가에서 전해오는 불교음악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들을 수 있는 공연이 25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금정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세계 39개국 4백여개팀의 1만 2천여명의 합창단원이 참가해 경합을 벌이는 2002년 부산합창올림픽 본선 무대에 오르는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백대일)는 “화청”을 비롯 “오분향례” “예불” “청산을 나를 보고” “이때에 나루신 부처님” “청산을 나를 보

고” 등의 불교전통음악과 현대불교음악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범어사도 2002년 부산합창올림픽 조직위원회 24일 경내에서 2002년 부산합창올림픽 개최 기념 불교문화페스티벌을 열어 세계 39개국에서 참가한 합창단원들에게 우리 전통불교문화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한다. 전통등 만들기 및 연꽃 만들기, 전통다도 시연 및 시음, 영산재 시연, 불교무용, 찬불합창, 저녁예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불교문화의 세계를 참가국 음악인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천미희기자

수재민희생자 추모법회

타중 무사로 인해 발생한 영동지역 수재민 희생자 위령 천후 합동 추모법회가 봉행됐다. 19일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추모법회는 유족들과 현해신(명창 월정사 주지), 마근스님(석초 신흥사 주지), 백운스님(천천 석왕사 주지), 김진선 강원도지사, 심기섭 강릉시장

등이 참석, 청혼 작어 축원, 봉행사, 모독골의 천후, 성금전달, 유족 대표 인사 순으로 이어졌다. 위령재 추진위원장 원행스님(원주 구룡사 주지)은 “이번 행사는 태풍 무사로 인해 영동 지역에 발생한 수재민 위로와 희생자 영가들의 49재를 맞이해 준비되었다”며 “부처님의 가피로 또다시 수재 화재 태풍 등의 재앙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기원도 함께 있다”고 밝혔다. 남동우기자



▷임정환 신도회장(앞줄 오른쪽)이 신도들과 육법공양의식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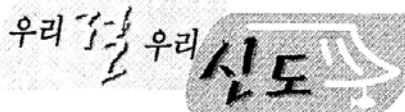
“그저 부처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 이상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밀려난 강제 이주민의 설움과 눈물이 서려있는 성남. 지금은 분당과의 빈부 격차로 소외감과 이질감을 느끼는 성남. 그 성남 수정구 태평3동 고개기루 위 성보사구 수정사에 다리에 철심을 박은 채 열심히 기도하는 한 노보살이 있다. 임정환(72) 관음행 신도회장. 임회장은 세속에 살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다. 94년 사고로 왼쪽 다리를 다친 것. 처음에는 다리가 뻐 징도 없었으나 결국 대수술을 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마취도 하지 않은

온갖 역경 딛고 신행활동 열심

성남 성보사 임정환 신도회장

그런 만큼 임 회장에게 있어 이런 시련들은 더욱 간절하게 부처님을 찾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임 회장이 불교와 인연을 맺은 건 우연한 기회 남편 친구의 권유로 성보사 인근 만경암에 다니면서부터다. 하지만 그 때는 말 그대로 절을 찾는 수준이었다. 그러던 중 수정사 창건주 법운스님을 만나고 나서부

들을 몇 되지 않았다. 신도회장의 직함도 직함이지만 스님의 유언을 거스름 수 없었던 임 회장은 끝까지 이 절을 지켰다. 현 주지인 영인스님이 오기까지 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영인스님이 주지 취임 후 첫 법회 참석자는 임 회장을 비롯한 4명이었다. 하지만 낙담하지 않고 밤낮으로 새로운 신도 포교에 나섰다. 하지만 임 회장은 다리가 성치 않아도, 가사에 지쳐 전신이 아파도 이웃을 대하는 마음은 각별하다. 모두 인연으로 맺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 회장 집에 들르는 이들은 찬물이라도 대접받아야 나갈 수 있다. 임 회장은 절을 찾는 것뿐 아니라



결손가정 아이들에 남몰래 장학금

태도 진행된 수술 때문에 이가 다 상할 정도였다. 의식 없이 보름정도 있다 2개월 만에 퇴원을 했다. 종아리에 철심을 박고 허벅지 부분의 살을 떼어내 이식한 채로였다. 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사고로 먼저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 임 회장은 절을 찾는 것뿐 아니라



의신기자 불교문화체험

의신기자를 위한 한국문화체험이 12일 경기도 용인 열반종(원장 해곡) 총본산 외우정사에서 개최됐다. 한국방송공사 주최로 열린 이날 한국불교문화체험에서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스리랑카 등 17개국 외신 기자 17명은 해국원장의 법어, 한국불교전통차인행회의 육법공양음식 관람 및 다도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해 한국불교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철우기자

통도사 개산대재 법요식

괘불이운등 다양한 행사

조계종 제15교구 본사 통도사주지 현란은 14일 제 1357회 통도사 개산대재 법요식을 봉행했다. 통도사 부방장 초우스님, 주지 현문스님, 신도회장 박희정 회장을 비롯해 1천 5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괘불이운, 헌공, 법요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합창대제가 열렸다. 전날인 13일에는 부도현다제와 통도사유치원 원생들의 재롱잔치, 백일장 등 다양한 행사로 개산대재의 뜻을 기렸다. 천미희기자

인천불교회관 원만성취 기원

도영스님등 600명 참석 포교대법회

인천 전법도량(주지 일재)은 12일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인천사암연합회장 지철 스님, 인천 보각선원 주지 송산 스님 등 사부대중 6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교대법회를 열고 인천불교회관 건립 원만 성취를 기원했다.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법문에서 “인천지역 불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인천불교회관 건립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자”고 당부했다. 풍자승으로 유명한 화가 원성 스님을 초청해 ‘작가와 대화’ 시간도 가졌다. 인천불교회관 관장 일지 스님은 “내년 6월 준공에 앞서 불교계가 취약한 인천지역의 포교와 문화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앞으로 매달 큰스님 초청 법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영규대사 추모법회

11월3일 공주 갑사서

임진왜란 당시 800여명의 승병과 함께 금산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기허당(麟墟堂) 영규(靈圭)대사 추모법회가 열렸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추모법회는 11월 3일 공주 갑사(주지 장곡) 표충원에서 육해공 삼군 군순회의와 계룡산 보전 시민모임 주관으로 열린다. 1 부는 군악대휘태대의장대의 위패봉안, 대중스님들의 화엄시시, 묵념, 장성화 군순회의의장의 봉행사, 심대평 충청남도지사의 추모사 순으로 열렸다. 2 부에서는 산과 사람, 음악이 어우러지는 산중음악회를 통해 계룡산

국립공원과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한다. 환경사진 및 그림전시, 불교미술시범 순으로 이어지는 2부행사는 여행스케치와 해바라기의 공연으로 끝을 맺는다. 남동우기자

어르신 2천여명 초청

범어사, 경로잔치 개최

사회복지법인 범어사대표이사 성오는 13일 금정중학교에서 금정구 관내와 부산시 일원의 어르신 2,000여명을 초청, 제2회 경로잔치를 봉행했다. 성오스님은 “모든 소외된 이들에게 불교계가 마음을 나누어 가는 것이야말로 불국토 실현의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천미희기자

추천의말

영인스님 성보사 주지



우리 절 신도회장 임정환 신도회장은 72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보살행을 실천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늘 얼굴에 관음의 미소를 머금은 채 불도량의 지킴이로 신도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임회장은 부처님이 계신 곳의 일이라면 한걸음도 달려와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탐심을 떨치지 못해 동체대비를 광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 회장처럼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한 줄 알 때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남모르게 자비행을 행한다. 인근 성남 은행중학교 학생 중 화비에 어려움을 겪는 결손가정 아이들에게 몇 년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남=남동우 기자